

## [ 인도남아시아 비즈니스 정보 ]

# 방글라데시 전력·에너지 시장 동향

거대한 인구를 보유한 방글라데시의 전력 수요량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방글라데시 정부는 증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더불어 기존의 천연가스, 석탄에 의지한 전력 생산에서 탈피하여 태양열 에너지, 액화 가스 등과 같은 새로운 종류의 에너지원을 적극 활용 및 발전 시키고자 한다.

### 멕시코 재생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개발 현황

오는 2030년까지 방글라데시 내 전력 수요가 3만 4,000 MW(메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방글라데시 정부는 전력 생산을 확대시킬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를 통해 방글라데시 정부는 수출 중심 경제를 부흥시키고 중산층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향후 15년간 해당 분야에 대한 투자는 약 75억 달러로 추산되며 2017년 2월 기준 설치된 발전소의 용량은 1만 3,179MW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부족한 배전 기반 시설과 전력 발전소 간 다른 유형과 연료 혼합 가능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는 민간 전력 생산량이 전체 발전소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방글라데시 인구의 2/3만이 전기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방글라데시가 성장 구도를 이어나갈 시 향후 몇 년 동안 최대 6,000만 명 규모의 잠재 시장에 전력 공급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방글라데시의 전력 발전소의 연료 혼합은 대부분 천연 가스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방글라데시 정부는 천연가스 의존도를 줄이고 2030년까지 석탄 기반 발전소를 활용하여 총 전력의 50%를 생산하고자 한다.

다른 해결책으로는 인접국의 전기 수입,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태양열과 풍력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사용 확대 등이 꼽힌다.

더불어 해양가스 탐사 기회도 언급되고 있으며 현재 뱅갈만 인근에 18개의 연안 구역이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이 탐사 혹은 배분을 위해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석유 및 가스 기업은 국영가스기업, 국영석유회사와 석유 공유 계약을 통해 해양가스 탐사 및 생산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7년 3월, 방글라데시 정부와 국영석유기업 페트로방글라(Petrobangla)는 심해 12구역의 석유 및 가스 탐사를 위해 공공 입찰 과정 없이 포스코 대우와 생산 공유 계약을 체결 한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방글라데시 정부는 생산 공유 계약 조건은 더 많은 국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방글라데시의 새로운 계약 모델은 페트로방글라가 가스 구매를 거부할 경우 포스코 대우가 국내외 제3자에게 협상된 가격으로 석유 자원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에너지 분야

방글라데시는 치솟는 연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LNG 수입에 눈을 돌리고 있다. 그 결과 LNG 공급 계약 관련 논의를 시작했으며 최초의 '부유식 LNG 저장 및 재기화 플랜트(Floating Storage And Regasification Units)'를 설치 과정에 돌입했다. 더불어 방글라데시는 LNG 기반 발전소 건설 계획 역시 고려중이다.

지난 2015년까지 방글라데시는 300만대 이상의 가정태양열시스템(SHS, Solar Home System)과 600만대가 넘는 설치 기지를 보유한 대형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셰이크 하시나(Minister Sheikh) 방글라데시 총리는 방글라데시 재생에너지 확대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2021년까지 2,000MW의 전력 생산을 목표로 설정했다.

자료정리: EMERiCs, 자료감수: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출처

Bangladesh-Energy,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2017.10.16  
<https://www.export.gov/article?id=Bangladesh-Power-and-energy>